

화력 약한 타선...불 지르는 불펜...KIA 봄날은 언제쯤



KIA 타이거즈 위즈덤이 2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과의 시즌 첫 경기에서 4회 홈런을 터트리며 4경기 연속 홈런을 이어갔다. (KIA 타이거즈 제공)

1번·해결사 부재에 폭발력 떨어지며 불펜 부담 가중 위즈덤 연일 불방망이·조상우 활약은 '위안거리'

1번과 뒷문 고민에 빠진 KIA 타이거즈가 버티기에 들어간다. KIA는 우승후보로 주목을 받으면서 2025시즌을 열었지만 구상과는 다른 출발을 하면서 패배가 쌓이고 있다. 타석에는 예상치 못한 부상이 이어지고 있다. 김도영이 개막전부터 햄스트링부상으로 이탈했고, 개막 후 세 번째 경기에서는 박찬호가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두 선수 모두 주루 과정에서 입은 아쉬운 부상이었다. 그리고 박찬호의 복귀가 임박했지만 또 다른 부상 이탈이 예정됐다. 김선빈이 왼쪽 종아리 근육 미세 파열로 대타 역할에 머물고 있고, 박찬호의 등록과 함께 엔트리에 서 말소될 예정이다. 1번 타자와 해결사가 동시에 빠지면서 지난 시즌 KIA 우승 질주를 이끌었던 타선의 폭발력이 떨어지고 있다. 선제점을 가져오기도 추가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불펜의 부담도 커졌다. 이런 패턴은 지난 2일 경기에서도 드러났다. 홈에서 지난해 한국시리즈 상대인 삼성과 시즌 첫 경기를 치른 KIA는 4회 터진 위즈덤의 한방으

로 선취점을 가져오는 데 성공했다. 위즈덤은 맞아 마자 홈런이었던 매서운 타구로, 4경기 연속 홈런을 장식했다. 하지만 결과는 2-4 역전패였다. 위즈덤의 선제 투런포 이후 이어진 수비에서 선발 김도현이 바로 2실점을 하면서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김도현이 이후 6회까지 추가 실점 없이 마운드를 지키면서 선발 역할 임무를 완수했지만, 타석에서 추가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앞선 패배 같은 양상의 흐름이 전개됐다. KIA는 조상우에 이어 전상현이 출격한 8회 2실점을 하면서 결국 2-4 역전패를 당했다. 박찬호의 부상 이후 이범호 감독은 최원준을 중심으로 김선빈, 박재현에게 리드오프 역할을 맡겼다. 하지만 박찬호가 빠진 6경기에서 1번 타자가 기록한 득점은 2점에 불과하다. 최원준과 김선빈의 감이 좋았을 때는 후속타가 따르지 않았고, 최근에는 김선빈이 부상으로 선발 라인업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고 최원준의 최근 페이스도 좋지 못하다. 주말 한화전부터 최근 4경기에서 1번 타자가 1루 베이스를 밟은 경우는 단 두 차례에 그쳤다. 1번 고민에 빠진 이범호 감독은 3일 최원준을 1번으로 배치했다. 이어 박재현을 2번에 넣어 스피드에 방점을 찍었다. 이범호 감독은 "1번 가는 선수마다 부담스러워하

다. 힘들어한다고 빼고 갈 수는 없는 것이다. 타격적인 밸런스 안 좋을 때 있으면 좋을 때 온다"며 "딱히 1번 쳐줄 수 있는 선수가 마땅치 않고, 나가서 도루로 해줄 수 있고 출루율이 3할 7푼 이상 찍었던 선수라 믿고 내보내려고 한다"고 최원준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했다. 답답한 공적이 이어지면서 불펜 악순환도 이어지고 있다. 이범호 감독은 "타자들이 점수 내는 게 어려우니까, 최소 실점으로 막고 이겨야 하는 상황이다. 쉽지는 않다"며 "점수를 많이 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투수들이 부담을 가진 게 아닌가 싶다. 부담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부담을 이겨내야 한다.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답답한 흐름에도 반가운 움직임은 있다. 박찬호의 5일 엔트리 재등 록이 확정된 가운데 김도영도 병원 재검진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 앞서 캐치볼과 웨이트를 진행해 왔던 김도영은 1주일간 기술훈련을 한 뒤 문제가 없으면 퓨처스 경기에서 다시 복귀에 속도를 내게 된다. 마운드에서는 불펜의 키로 꼽혔던 조상우의 활약이 위안이다. 지난 30일 한화전에서 1.2이닝 퍼펙트 피칭으로 팀의 4연패를 끊었던 조상우는 2일에도 탈삼진 2개를 더한 삼자범퇴를 장식하면서 불펜에 힘을 실어줬다. 부침의 시간을 보낸 KIA가 부상자들의 복귀 움직임과 조상우의 상승세와 맞물려 순위 싸움에 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지난달 22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5라운드 광주FC와 포항스틸러스 경기에서 광주 헤이스가 득점한 뒤 환호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투혼의 질주' 광주FC "승점 3점 독식한다"

제주와 K리그1 7라운드 홈경기 헤이스 세 경기 연속골 도전

광주FC가 안방에서 제주SK FC를 상대로 승리 사냥에 나선다. 광주는 오는 6일 오후 4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제주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2025 7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앞선 원정에서 '1위' 대전하나시티즌을 상대로 승점 1을 더한 광주는 홈팬들 앞에서 '승점 3'을 독식하겠다는 각오다. 올 시즌 광주는 리그 6경기에서 1승 4무 1패를 기록, 단 한 차례만 패배했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일정을 병행하는 빠듯한 일정 속 부상 이탈까지 속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투혼의 질주다. 이정호 감독은 상대 스쿼드와 선수들의 컨디션을 고려해 매 경기 다른 선발 라인업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다. 앞선 대전전에는 포항전과 비교하면 선발진에서 4명의 변화가 있었다. 이날 이정호 감독은 이민기, 이강현, 오후성, 박인혁을 대신해 브루노, 주세종, 김한길, 문민서를 선발로 투입하면서 대전의 허를 찔렀다. 그리고 전반전에서 대전을 완벽하게 봉쇄하면서 헤이스의 두 경기 연속골로 선제골도 장식했다. 광주는 후반 동점골은 허용했지만 박인혁이 후반

막판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대전의 거친 공세를 막고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시즌 초반부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도 소득이 없었던 헤이스가 연달아 골을 기록한 게 고무적이다. 대표팀에 다녀온 아사니도 앞선 대전전에서 후반 전 교체 출전하면서 컨디션을 조절한 만큼 광주는 헤이스와 아사니 듀오로 제주 공략에 나선다. 한편 이정호 감독이 대전전에서 논란의 퇴장을 당하면서 마찰준 수석코치가 이번 제주전을 이끌게 된다. 봄날 축구장을 찾은 이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됐다. 광주는 식목일 다음날 경기가 진행되는 일정에 맞춰 '이카시아 나무 묘목 홍보부스'에서 선착순 100명에게 아카시아 나무를 제공한다. 또 팬들은 '벚꽃나무 꾸미기' 이벤트를 통해 ACLE 8강 진출에 성공한 선수단에 응원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오후 2시 예정됐던 경기는

하프타임에는 전광판 이벤트인 '봄격적으로 찾아봐'를 통해 광주패밀리랜드 자유이용권 등의 경품을 증정하며, 네이버 스포츠 직관 챌린지 이벤트로 광주FC 2025시즌 선수단 친필사인 유니폼도 선물한다. 광주FC 홍보대사 '노라조' 조빈이 마련한 특별한 이벤트도 있다. 조빈은 선착순 500명에게 응원용 메가폰을 증정하고, '조빈을 찾아라' 가변 응원 셀카 이벤트도 진행한다. 경기장에서 조빈을 발견 후 직접 꾸민 가면&응원도구를 착용한 상태로 '가면을 쓴 조빈'과 함께 셀카를 촬영한 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스타벅스 이용권을 제공한다. 이외에 선수단 사인회, 벚꽃나무 조형물을 활용한 대형 유니폼 에어블론 포토존 등 다양한 행사가 팬들을 맞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설'도 예외 없다...신지애, 녹장플레이로 1벌타

KLPGA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대회에 출전한 '전설' 신지애(사진)가 녹장 플레이로 벌타를 받았다. 신지애는 3일 부산 동래 베네스트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KLPGA 투어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 1라운드 15번 홀(파4)에서 녹장 플레이를 했다는 이유로 1벌타를 부과받았다. 15번 홀에서 두 번 만에 그린에 볼을 올려 두 번의 퍼트 파를 지켰지만, 벌타를 받은 탓에 15번 홀 스코어는 보기가 됐다. 신지애는 16번 홀 티박스에서 벌타 부과 사실을 통보받았다. 8번 홀(파3) 티샷 때 주어진 시간 40초를 넘겨 경기위원의 구두 경고를 한 번 받았던 신지애는 15번 홀 그린에서 첫 퍼트를 하는데 1분 59초를 썼다가 결국 벌타를 받았다. 퍼트할 때도 기준 시간은 40초이며, 맨 먼저



퍼트하는 선수는 10초를 더 준다. 이날 버디 3개를 잡아낸 신지애는 보기 5개를 곁들여 2오버파 74타를 제출했다. KLPGA 투어에서 녹장 플레이로 벌타를 받은 사례는 전에도 있지만 올해는 처음이다. KLPGA 경기위원회는 경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녹장 플레이 근절이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이 대회에 앞서 선수분과위원회에 선수들의 빠른 플레이를 당부하고 작년보다 더 강력한 규정 적용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